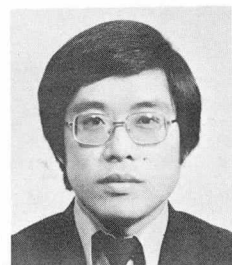


이달의 양돈시황

돼지값 계속 상승세 보일듯



함병은
(본회 지도부)

양돈경기동향

2월 중순이후 돼지값은 계속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3월 중순 현재 도매가격(지육 kg당)이 2천2백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90년 2월 14일부터 3월 17일까지의 전국 돼지가격을 보면, 비육돈 가격은 11만5천원으로 전월 같은 기간의 10만1천원보다 1만4천원(13.9%)이 상승되었고, 자돈가격은 3만1천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보합세를 나타냈다. 또한 지역별 도매시황을 보면 서울지역은 총 경락된 마리수가 22만3천3백79두로 1년전 같은 기간의 20만1백93두보다 2만3천1백86두(11.6%)가 늘어났고, 도매가격은 2천1백20원으로 전년 동기의 1천7백47원보다 3백73원(21.4%)이 상승되었다. 이중 최고가격은 3월 16일과 17일의 2천2백55원, 최저가격은 2월 14일의 1천7백47원으로 3백73원의 가격차이를 보였다.

인천지역은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이 각각 2천2백77원(3월 15일), 1천9백36원(2월 14일)으로 평균가격이 2천1백18원으로 전년동기의 1천7백80원과 비교해서 3백38원(19.0%)이 상승하였고, 총거래된 마리수는 3만1천8백95두로 1년전 같은 기간보다 3천3백9두(11.6%)가 더 경락되었다.

대구지역은 총경락된 마리수가 3만1천1백72두로서 1년전 동기의 2만4천9백95두보다 6천1백77두(24.7%)가 늘어났으며, 평균 도매가격은 2천60원으로 전년 동기의 1천7백96원보다 2백64원(14.7%)이 상승되었고, 이중 최고가격은 3월 17일에 2천1백82원을, 최저가격은 2월 22일의 1천9백60원을 나타냈다.

부산지역은 역시 경락된 두수가 6만2천9백8두로서 1년전 같은 기간보다 9백41두(1.5%)가 늘어났고, 도매가격은 2천1백12원으로 전년 동기의 1천7백27원보다 3백85원(22.3%)이 상승되었고 최고가격은 2천2백39원(3월 16일), 최저가격은

1천9백97원(2월 15일)을 보였다.

광주지역을 보면 최고가격은 3월 13일에 2천3백15원, 최저가격은 2월 14일에 1천7백89원을 나타냈으며, 평균 도매가격은 1천9백79원으로 1년 전의 1천5백46원보다 4백33원(28.0%)이 상승되었고, 총 경락된 두수는 1만7백98두로 전년 동기의 9천9백57두보다 8백39두(8.5%)가 늘어났다.

한편 '90년 2월의 총 양돈사료 생산량은 28만1천톤으로 1년전의 29만1천톤보다 1만톤(3.7%)이 감소되었고, 이중 찻먹이용이 5만1천4백80톤, 육성비육용이 15만5천1백62톤, 모돈용이 7만3천2백48톤을 생산하여 1년전보다 찻먹이용은 2천8백95톤(5.3%), 모돈용은 1만3천2백36톤(15.3%)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육성비육용 사료는 6천9백80톤(4.7%) 늘어났다.

또한 2월의 돼지고기 수출은 물량이 8백49톤, 금액이 3백94만4천불로 1년전보다 물량은 4백5톤(91%), 금액은 1백71만2천불(77%)이 늘어났으며, 도축실적은 70만두로서 전년의 61만4천두보다 8만6천두(14.0%)가 증가되었다.

서울특별시는 쇠고기 및 돼지고기 연동가격을 변경고시하였는데, 돼지고기(정육 500g)는 종전 1천5백50원에서 1백50원이 상승한 1천7백원으로, 쇠고기 가격은 5천1백원에서 1백50원이 상승한 5천2백50원으로 '9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축장 부조리로 큰 홍역을 치르고 있는 우성농역의 돼지 도축수가 평상시보다 1일 2백두 정도 감소되었으나, 3월 하순경에는 정상을 되찾을 것으로 밝히고 있다.

양돈경기전망

'90년 3월 하순이후 돼지값은 2월 중순의 현재와 같은 2천2백원대(도매가격)에서 보합세가

〈표1〉 '90.2월 양돈사료 생산량

(단위: 톤)

| 구분 | '90.2월 (A) | '90.1월 (B) | '89.2월 (C) | 등락(%) | |
|-------|---------------|---------------|---------------|-------|-------|
| | | | | A/B | A/C |
| 찻먹이용 | 51,480 | 54,883 | 54,375 | -6.2 | -5.3 |
| 육성비육용 | 155,162 | 171,888 | 148,182 | -9.7 | 4.7 |
| 모돈용 | 73,248 | 75,274 | 86,484 | -2.7 | -15.3 |
| 계 | 280,553 | 302,834 | 291,274 | -7.4 | -3.7 |

〈표2〉 '90.2월 돼지고기 수출실적

(단위: 톤)

| 구분 | 2월 | | | 1~2월 누계 | | |
|------------|--------|--------|--------|---------|--------|--------|
| | '90(A) | '89(B) | A/B(%) | '90(A) | '89(B) | A/B(%) |
| 물량 (톤) | 849 | 444 | 91.2 | 1,802 | 773 | 133.1 |
| 금액 (천불) | 3,944 | 2,232 | 76.7 | 8,227 | 3,859 | 113.2 |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진다.

그 주요 이유는 '90년 2월의 양돈사료 생산량 중 3월~5월에 출하될 돼지사료인 육성비육용 사료가 전월보다 9.7% 감소되어 현재 출하되는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본 협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육가공 업체들이 직접 산지 수집을 하고 있는 등 공급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2백만원대를 육박하고 있는 소값 상승으로 대체재인 돼지고기 소비가 증가되고, 나아가 4월 초순은 식목일 등 공휴일로 행락철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보여, 공급물량의 감소와 수요량 증대로 돈가는 계속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산지 비육돈 가격은 12만원대에서, 자돈가격은 3만3천원대에서, 그리고 도매가격은 2천2백원대에서 강보합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강한 소값 상승은 장기적으로 불때 오히려 수입 쇠고기 방출량을 증대시켜 대체재인 돼지값을 하락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돼지값 전망은 수입쇠고기 방출량의 크기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